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5호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 Vol. 9. No. 5. pp. 157-179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비교*

방소영** 최선희*** 이수현**** 황혜정*****

Impact of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Par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up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 Comparison between Two-parent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Bang, So Young Choi, Sun Hee Lee, Soo Hyun Hwang, Hye Jung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19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자녀의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행동적 특성에 있어서는 양부모 가정 부모가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현재 양육 만족도와 양육의 즐거움, 식생활습관, 그리고 긍정양육행동이 높았고, 한부모 가정 부모는 양부모 가정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가 양부모 가정 자녀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양부모 자녀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으며,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았다. 반면에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자녀는 부모가 식생활 습관과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저소득층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부모양육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부모형태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저소득 가정,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 자녀 문제행동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제1저자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졸업.
***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sunny5198@naver.com).
**** 공동저자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 공동저자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숙하는 동안 개인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가정환경은 인간이 성장 발달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함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인지, 그리고 신체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고 발달시키며, 정서함양 및 사회성을 갖게 된다. 즉 최초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곳은 가정으로 가정에서의 경험은 인격형성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Joanne, 1996). 오늘날 같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중소득층이 저소득층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부모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영향을 미쳐 양육방식에 있어서 부모의 행동역할 변화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와의 사별, 이혼, 별거 및 기타의 이유로 부모가 부재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 가정생활의 해체는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이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결정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Leyendecker, Harwood, Comparini, & Yalcinkaya, 2005).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급수급자는 75만 3천 가구였으나, 2012년 12월 말 82만 1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고되어 그 수는 과거에 비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b, 2013). 이처럼 저소득층 가정은 증가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률은 14.6%로 OECD 국가 기준 평균 10.6%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김안나, 2013). 이러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김미숙, 조애정, 배화옥, 최현수, 홍미, 김효진, 2007), 이들 가정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경험함으로써 아동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차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물질적 결핍을 겪게 된다.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생활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의 자존심이 낮으며,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방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남상미, 2012). 게다가 지역사회의 열악한 환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갈등적 가족관계,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 양육활동 부족, 그 외 만성질병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 등 다양한 문제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재엽, 이익섭, 박수경, 1998; 윤명숙, 2001; 윤혜미, 2005; 장혜자, 2000; Luthar, 1991).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품행장애와 행동문제, 우울증, 낮은 자존감, 빈약한 사회적 적응력을 보이며(문은경, 2006; 정안숙, 2003; McGee, 1999; McLeod & Shanahan, 1993), 장기적으로 빈곤에 노출된 아동은 행동장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 자녀는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인성 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인 태도, 긴장, 불안감 등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학업성취 및 행동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소혜, 1995). 이와 더불어 Swadi(1999)의 연구에서도 저소득 가정의 부적합한 환경은 성격적 특성이나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아동으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는 아동기라는 시기 특성상 생애 발달의 기본적인 과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그 영향력이 더욱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희수, 2004).

통계청(2013)의 인구주택 총 조사표에 따르면 최근 한부모 가정, 특히 여성가구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사별과 이혼, 미혼이 조사되었다. 이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가구증가는 이혼과 미혼가구주의 증가가 그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는데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맞벌이가 가능한 정상적인 양부모 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혼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면서 저소득 가정의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은 아동에게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게 하며, 한 부모와만 살게 되어 새로운 역할 부담이 생기며 이사나 전학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는 곧 아동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주소희, 2003). 부모이혼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을 통해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혼 후 생활수준이 심각하게 낮아지면 자녀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육적인 장난감, 책, 컴퓨터 등을 위한 공급능력을 잃게 되어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으로의 이사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Amato & Booth, 1994).

이혼모들의 경우, 가정의 수입이 감소하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압박

은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게 되어 정상적인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녀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혼가정의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즉 이혼가정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도벽, 싸움, 거짓말하기,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과 위축 행동, 불안과 우울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Allison & Furstenberg, 1989; Hetherinton & Clingempel, 1992). 이처럼 저소득층의 잠재적인 문제와 이혼이라는 사건이 복합되어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부모의 이혼 외에도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별거 등으로 인하여 편부나 편모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 아동들은 중요한 타인인 또래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한쪽 부모의 상실로 자신의 처지가 또래와 다르다고 느끼면서 또래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자의 부재로 생활스트레스 사건을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정신건장, 적응행동 등과 관련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상에서 부모와의 분리·상실을 경험하는 한부모 가정 아동들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 사회적 욕구들이 좌절되거나 무시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게 되어 불안, 우울 등을 나타낸다(홍미자, 2006).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부나 모의 구조적 결손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이외에 심리적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가사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및 심리적 역기능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부나 모의 부재로 오는 슬픔이나 상실감 등의 감정처리를 해야 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와 생활상의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문제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들 가정은 대부분 저소득 가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아동들은 환경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심리적·사회적 여러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이근매, 2004).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가지는 문제들은 아동이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이 낮아 불안이나 분노, 우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데, 최창진(2002)과 김지영(2002)의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에 비해 자아개념 및 학교 적응력의 수준이 낮으며 더 우울해하고 자기개념 중요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가족 구조의 형태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Hetherington(1993)은 이혼 초기에는 자녀가 받는 영향이 부정적이었으나, 20년

후 이혼가정 자녀의 80%는 새로운 삶에 비교적 원만한 적응을 해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Hetherington(1993)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이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더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혼가정 자녀집단 내에서의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Amato와 Keith(1991)가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련된 92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혼가정 자녀는 학업성취, 문제행동, 심리적 적응,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이혼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황혜정, 천희영, 옥경희, 2010).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이혼, 별거 등이 자녀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부모형태에 따른 가족구조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어 가족 구조의 형태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을 살펴보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저소득층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령기 아동의 정서와 학업성취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 구조의 형태 및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방치할 경우 더욱 악화되며,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한준아, 2010). 최근 들어 아동의 문제행동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지며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남소현, 김영희, 2000). 따라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양육자들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파악과 이 특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의 형태를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으로 구분하여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부모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저소득 가정의 부모 형태(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따른 부모의 심리·행동적 특성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행동적 특성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는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저소득 가정의 부모 형태(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따른 부모의 심리·행동적 특성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가정의 특성 중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등이 소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통계 결과를 위해 양부모 가정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해당 설문에 참여한 가정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3가구, 새터민 가정 1가구, 재혼 가정 1가구, 소년소녀 가정 1가구, 미혼모 가정 1가구,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 9가구, 조손 가정 13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양부모 가정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50.8%, 여아는 49.2%로 성별에 있어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자녀의 연령적 특성은 24개월 이상~취학 전 상태에 있는 자녀는 36.9%였으며, 만 12세 이하의 학령기 아동이 63.1%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만 2세 이상~만 5세 미만 유아가 15.0%, 만 5세 이상~만 8세 미만 유아 21.8%, 만 8세 이상~만 10세 미만 유아 21.2%, 만 10세 이상~만 12세 미만 유아 20.7%, 만 12세 이상~만 14세 미만 유아가 21.5%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부모의 일반적 특성 (N = 193)

구 분		빈 도(%)		
응답자				
	부	34 (17.6)		
	모	159 (22.4)		
연령				
	20세 미만	1 (0.5)		
	20~30세 미만	3 (1.6)		
	30~40세 미만	73 (38.4)		
	40~50세 미만	98 (51.6)		
	50~60세 미만	11 (5.4)		
	60세 이상	4 (2.1)		
가정의 형태				
	양부모	96 (49.7)		
	한부모	97 (50.3)		
		부	모	친인척
주양육자	양부모 가정	27 (28.1)	69 (71.9)	-
	한부모 가정	16 (16.5)	77 (79.4)	4 (4.1)
직업		부	모	
	가사	-	56 (33.9)	
	무직	17 (17.2)	20 (12.1)	
	취업(정규직)	17 (17.2)	15 (9.1)	
	취업(비정규직)	34 (34.3)	32 (19.4)	
	취업(아르바이트)	5 (5.1)	29 (17.6)	
	기타	24 (24.2)	13 (7.9)	
	무응답	2 (2.0)	-	
	소 계	103 (100.0)	167 (100.0)	
교육수준		부	모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1.9)	6 (3.6)	
	초등학교 졸업	4 (3.9)	6 (3.6)	
	중학교 졸업	15 (14.7)	31 (18.6)	
	고등학교 졸업	62 (60.2)	111 (66.5)	
	전문대 졸업	17 (16.5)	8 (4.8)	
	대학교 졸업	2 (1.9)	5 (3.0)	
	대학원 이상	1 (1.0)	-	
	소 계	103 (100.0)	167 (100.0)	
근로소득				
	0원	21 (12.1)		
	50만원 미만	27 (15.6)		
	50~100원 미만	61 (35.3)		
	100~150만원 미만	37 (21.4)		
	150~200만원 미만	24 (13.9)		
	200만원 이상	3 (1.7)		
	전 체	193 (100.0)		

<표 1>에 제시한 부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응답자별로는 어머니가 159명(22.4%)로 아버지 34명(17.6%)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에서는 40~50세 미만이 98명(51.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40세 미만 73명(38.4%), 50~60세 미만 11명(5.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형태별로는 양부모가 96명(49.7%), 한부모는 97명(50.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취업(비정규직)이 34명(34.3%)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어머니의 직업은 가사가 56명(33.9%)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이 62명(60.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어머니도 고등학교 졸업이 111명(6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보건복지부 주최 2012년 드림스타트 사업에 활용된 부모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012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건복지부a, 2013)에서 사용된 '아동가족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 설문지'는 각 가구의 생활여건, 아동생활 여건, 교육 상황, 아동 건강, 아동의 요구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아동가족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 설문지'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자료 자체가 연구용으로 제작된 설문이 아닌 자료 수집에 목적이 있으므로 도구의 적합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저소득 가정 부모의 변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재구성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 외에 부모의 행동적 특성 영역, 자녀의 문제행동 측정 영역으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모의 심리·행동 특성에는 기본적인 부모의 심리 ·행동적 특성인 현재 양육에 대한 만족도, 미래 양육에 대한 기대도, 일상생활에의 만족도, 미래생활에의 기대도, 자녀관계 만족도, 양육에 대한 즐거움 정도, 가계 부담수준 및 가정의 규칙적인 올바른 식생활 습관, 긍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훈육 방법, 양육스트레스, 가족 내 문제, 부모의 우울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부모의 우울수준은 Beck(1967)에 의해 개발된 BDI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K-BDI를 사용하였으며, K-BDI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자녀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적응과 정서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표준

화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오경자 외, 2001)의 내용을 유목화하고 재구성하여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4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영역별 신뢰도는 .702~.778을 나타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도구의 내용

내용	문항 수	Cronbach's α
현재 양육에 대한 만족도	1	-
미래 양육에 대한 기대도	1	-
일상 생활에의 만족도	1	-
미래 생활에의 기대도	1	-
자녀관계 만족도	1	-
양육에 대한 즐거움 정도	1	-
가계 부담수준	1	-
부모의 우울수준	21	.730
규칙적인 올바른 식생활 습관	7	.702
긍정적 양육행동	4	.778
부정적 양육행동	4	.730
부정적 훈육 방법	5	.704
양육스트레스	9	.746
가족 내 문제	1	-
자녀의 문제행동	6	.772
전체	64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를 위한 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드림스타트센터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용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직접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부모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배부하거나 가정 방문하여 응답한 후 수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250여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가정형태를 고려해 본 연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를 제외하여 총 19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부모의 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과 자녀의 문제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축차변수선택법(step 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유효변수와 그 외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F값이 2미만인 변수는 제외하고 실시하였다(노형진, 2007).

Ⅲ. 결과 및 해석

1. 저소득 가정의 부모형태에 따른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차이

1) 저소득 가정의 부모형태에 따른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의 차이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형태에 따라 현재 양육 만족도, 미래 양육 기대도, 일상생활 만족도, 미래생활 기대도, 자녀관계 만족도, 양육의 즐거움, 가계 부담감, 부모우울성, 식생활습관, 긍정양육행동, 부정양육행동, 부정적 훈육방법, 양육스트레스, 가족문제 등 심리 행동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현재 양육 만족도는 양부모 가정 부모가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며, 부모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6, p<.05). 미래 양육 기대도와 일상생활 만족도, 미래생활 기대도는 한부모 가정 부모가 양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관계 만족도는 양부모 가정 부모가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나 부모 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양육의 즐거움은 양부모 가정 부모가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26, p<.001). 가계 부담감은 양부모 가정 부모가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고, 부모 우울성은 한부모 가정 부모가 양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생활습관(t=2.17, p<.05)과 긍정양육행동(t=2.56, p<.05)은 양부모 가정 부모가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며, 부모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양육행동은 양부모 가정 부모가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고, 부정적 훈육방법은 한부모 가정 부모가 양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양육스트레스는 한부모 가정 부모가 양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4, p<.05). 가족문제는 한부모 가정 부모가 양부모 가정 부모보다 높았으나 부모 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 저소득 가정의 부모 형태에 따른 부모의 심리행동적 변인의 차이

변인	양부모 가정 *M(SD)*	한부모 가정 *M(SD)*	*t*
현재 양육 만족도	3.05 (0.75)	2.82 (0.80)	2.06*
미래 양육 기대도	3.46 (0.76)	3.51 (0.78)	-0.47
일상생활 만족도	2.65 (0.82)	2.74 (0.84)	-0.79
미래생활 기대도	3.39 (0.96)	3.45 (0.93)	-0.48
자녀관계 만족도	2.87 (0.81)	2.83 (0.83)	0.33
양육의 즐거움	2.06 (0.57)	1.80 (0.53)	3.26***
가계 부담감	3.20 (1.52)	3.09 (1.29)	0.53
부모우울성	13.25 (11.36)	14.76 (11.95)	-0.83
식생활습관	5.17 (1.45)	4.67 (1.40)	2.17*
긍정양육행동	13.30 (2.83)	12.28 (2.68)	2.56*
부정양육행동	10.65 (2.41)	10.48 (2.44)	0.47
부정적 훈육방법	11.33 (2.39)	11.86 (2.38)	-1.42
양육스트레스	21.86 (5.76)	23.88 (5.68)	-2.34*
가족문제	1.35 (1.25)	1.43 (1.22)	-0.44

*p < .05. ***p < .001.

이상에서 저소득 가정의 부모형태에 따라 심리 행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양부모 가정 부모가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현재 양육 만족도와 양육의 즐거움, 식생활습관, 그리고 긍정양육행동이 높았고, 한부모 가정 부모는 양부모 가정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저소득 가정의 부모형태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차이

저소득 가정의 부모형태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저소득 가정의 부모 형태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차이

집단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t*
M (SD)	1.84 (1.91)	2.07 (2.51)	0.1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 자녀가 양부모 가정 자녀보다 문제행동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형태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저소득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은 현재 양육 만족도(r=-.22, p<.01) 및 미래 양육 기대도(r=-.15, p<.05), 일상생활 만족도(r=-.25, p<.001), 자녀관계 만족도(r=-.38, p<.001), 양육의 즐거움(r=-.21, p<.01), 그리고 식생활 습관(r=-0.3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 우울성(r=.25, p<.01)과 부정양육행동(r=.25, p<.001), 그리고 양육스트레스(r=.42,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 가정 부모가 현재 양육 만족도와 미래 양육 기대도, 일상생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양육의 즐거움, 그리고 식생활 습관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낮으며, 부모 우울성과 부정양육행동,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행동적 변인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현재 양육 만족도	1.00														
2. 미래 양육 기대도	0.37*	1.00													
3. 일상생활 만족도	0.23**	0.23***	1.00												
4. 미래생활 기대도	0.18*	0.44***	0.31***	1.00											
5. 자녀관계 만족도	0.27***	0.22**	0.29***	0.16*	1.00										
6. 양육의 즐거움	0.17*	0.05	0.21**	0.18*	-0.45***	1.00									
7. 가계 부담감	0.10	0.11	-0.17*	-0.01	0.19**	0.16*	1.00								
8. 부모우울성	-0.26***	-0.07	-0.28***	-0.31***	0.26***	0.37***	0.03	1.00							
9. 식생활 습관	0.23**	0.01	0.11	0.15	-0.23**	-0.18*	-0.17*	-0.28***	1.00						
10. 긍정양육행동	0.14	0.12	0.12	0.14	-0.14	-0.15*	-0.23***	-0.07	0.29***	1.00					
11. 부정양육행동	-0.10	-0.08	-0.16*	-0.02	0.20**	0.27***	0.10	0.17*	-0.21**	-0.20**	1.00				
12. 부정적훈육방법	-0.29***	-0.08	-0.08	0.09	0.20*	0.27***	0.02	0.26**	-0.05	-0.30***	0.42***	1.00			
13. 양육스트레스	-0.31***	-0.14	-0.16*	-0.10	0.40***	0.44***	0.00	0.31***	-0.36***	-0.09	0.40***	0.26**	1.00		
14. 가족문제	0.01	-0.02	0.16*	0.04	0.08	0.07	0.07	-0.08	-0.14	-0.15*	0.02	0.12	-0.02	1.00	
15. 문제행동	-0.22**	-0.15*	-0.25***	-0.07	-0.38***	-0.21**	0.06	0.25**	-0.34***	-0.05	0.25***	0.10	0.42***	0.07	1.00
M	2.94	3.48	2.69	3.42	2.15	2.07	3.15	14.02	4.94	12.78	10.56	11.58	22.88	1.39	1.96
(SD)	(0.78)	(0.77)	(0.83)	(0.94)	(0.82)	(0.56)	(1.41)	(11.65)	(1.45)	(2.79)	(2.42)	(2.39)	(5.79)	(1.23)	(2.23)

*$p < .05$. **$p < .01$. ***$p < .001$.

3.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행동적 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질적인 변수인 가족문제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형태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전체 저소득가정 부모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소득 가정 부모의 형태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소득 가정의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모두 포함한 전체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저소득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행동적 요인 (N=193)

구분	B	β	t	R^2변화량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상수	-5.525		-4.790***			
양육의 즐거움	-2.460	-.497	-4.005***	.435	.885	1.130
일상생활 만족도	-0.988	-.291	-2.344*	.058	.885	1.130
		R^2	.497			
		F	23.364***			

*p < .05. ***p < .001.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양육의 즐거움은 43.5%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여기에 일상생활만족도가 첨가됨으로써 5.8% 설명력이 증가하여 전체 49.7%(R^2=.497)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문제행동에는 양육의 즐거움(β=-.497, p<.001)과 일상생활 만족도(β=-.29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소득층 양부모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소득층 양부모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저소득층 양부모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행동적 요인 (N=96)

구 분	B	β	t	R^2변화량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상수	-2.407		-3.501***			
양육스트레스	.112	.320	3.497***	.204	.995	1.005
자녀관계 만족도	-.776	-.275	-3.002**	.058	.995	1.005
		R^2	.262			
		F	29.453***			

**p < .01. ***p < .001.

저소득층 양부모 가정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20.4%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자녀관계 만족도가 더해져 5.8%의 설명력이 증가하고 전체 26.2%(R^2=.262)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양부모 자녀의 문제행동에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β=.32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자녀관계 만족도(β=-.275,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 양부모 자녀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으며,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음을 알 수 있다.

3)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행동적 요인 (N=97)

구 분	B	β	t	R^2변화량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상수	2.684		2.060*			
식생활습관	-0.266	-.0.231	-1.773*	0.150	.995	1.005
양육스트레스	0.073	0.290	2.256*	0.063	.972	1.028
일상생활 만족도	-0.497	-0.245	-2.064*	0.059	.997	1.024
		R^2	.272			
		F	6.594***			

*p < .05. ***p < .001.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식생활습관이 15.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여기에 양육스트레스가 첨가됨으로써 6..3%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21.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식생활습관, 양육스트레스에 일상생활만족도가 첨가될 경우 5.8%의 설명력이 더 증가해 전체적으로 볼때 27.2%(R^2=.27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의 문제행동에는 식생활습관(β=-.231, p<.05)과 일상생활 만족도(β=-.24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β=.29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자녀는 부모가 식생활습관과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가정의 저소득 문제와 부모형태의 부정적 변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서양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서양에서는 가족관계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부모형태나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모형태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보건복지부 주최 드림스타트 사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시된 연구는 저소득 가정의 부모 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부모 가정 부모는 한부모 가정 부모보다 현재 양육 만족도와 양육의 즐거움, 식생활습관, 그리고 긍정양육행동이 높았고, 한부모 가정 부모는 양부모 가정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양부모 가정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가진다는 연구결과(한경혜, 이정화, 2002; 박정옥, 2007; 한준아, 2010)와 일치하며, 한부모 가정에서의 양육자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적극적 참여, 규제, 합리적 지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연구결과들과도 그 의미를 같이한다(김현미, 2004; Crnic & Greeberg, 1990). 따라서 한부모가 양부모보다 자녀양육으로 인해 절대적 시간 부족과 사회적지지 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정서적 교육에서의 어려움이 뒤따른다(김민희, 2011).

또한 본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은 대부분 어머니로서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지속적인 모자 가정의 증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의 열악성과 가부장적 사회가치관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떠한 가정보다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 모자가정 편모의 낮은 학력과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상태를 고려하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임

시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안정된 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편모의 건강이나 아동의 보육,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종일근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박연진, 2002). 이렇듯 경제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한부모 가정은 가족의 생계와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을 해야 함으로써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할 수 밖에 없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이에 부모를 포함한 아동들이 매일 규칙적이고 올바른 영양섭취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의 식습관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양육의 만족감과 즐거움은 양부모들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 형태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친가족의 자녀보다 편부모 가족의 자녀들이 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오승환(2001)과 부모의 이혼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국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밝힌 홍순혜(2004)의 연구와도 상반된다. 하지만 이혼가정의 자녀라도 양육자가 높은 수준의 온정, 애정을 보이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훈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질 낮은 양육을 받는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행동문제를 덜 보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반면, 온정성이 낮고 독재적, 통제적일 경우 자녀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Dunlop, Burns, & Bermingham, 2001)는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꼭 한부모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문제행동이 높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강희경, 2002),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백혜정, 황혜정, 2006; 최미례, 이인혜, 2003)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서도 뒷받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부모형태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도 차이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거의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동일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수원시에 한정된 작은 범위의 실태조사를 통한 표집이었고 드림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연구의 목적보다는 지원사업의 목적이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연구대상의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형태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을 밝히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 가정 부모가 현재 양육 만족도와 미래 양육 기대도, 일상생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양육의 즐거움, 그리고 식생활 습관이 좋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낮으며, 부모 우울성과 부정양육행동,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높았다.

이는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정서행동, 즉 문제행동, 부정적인 학습행동과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이 높다고 밝힌 심숙영(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의 우울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전체 문제행동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신지현(2008)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고 있으며, 유아의 규칙적인 식생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지적문제 뿐만 아니라 행동문제로 이어지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행동발달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민인자(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의 물리적,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상황이 부모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아동들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아동 또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낮아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낮게 나타나고, 빈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모일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을 함으로써 양육시간의 부족, 규칙적이지 못한 식생활 습관 등 상대적으로 자신이나 자녀에게 갖는 관심이 적어지게 되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져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사용하고, 거부・제재나 과도한 훈육과 같은 비양육적인 행동을 높게 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 양부모 자녀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으며,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았다. 반면에 저소득 가정 한부모 자녀는 부모가 식생활습관과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저소득 가정 부모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이 다르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부재 혹은 한쪽 부모의 부재가 한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모두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의정, 이상균(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 아동의 우울감, 공격성이 높았고, 사회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홍순혜 외(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저소득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 간의 상호 지지와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가정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부모들을 위한 교육기회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등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결속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저소득 가정의 의료보호 확대 및 주거비 보조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들의 확대와 전문화된 직업훈련이나 한부모 가정들이 지닌 특성과 욕구에 따른 자활사업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관 및 학교 돌봄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서비스가 지금보다 한층 더 질적으로 성장하여 부모들과 아이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연구적 특성상 부모의 심리 행동적 특성의 일부만을 측정하거나 적은 문항수로 부모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특정 도시에서 진행된 저소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만을 표집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저소득 가정을 단일화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형태 즉 양부모와 한부모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다양한 부모형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과 부모의 형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 행동적 변인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변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강희경(2002).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과후 집단프로그램. **한국보육학회지, 2**(1), 7-19.

김미숙, 조애정, 배화옥, 최현수, 홍미, 김효진(2007). 한국의 아동 빈곤 실태와 빈곤 아동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김민희(2011). 아동의 문제행동 심각도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 연구: 전반적 발달장애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집단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안나(2013). 저소득 가정 아동의 성인 아이 성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재엽, 이익섭, 박수경(1998).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가정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6**, 54-72.

김지영(2002).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우울, 불안, 자기개념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희수(2004).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남상미(2012). 저소득층 가정 부모와 유아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경험의 의미.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남소현 ,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적응행동: 성별중심. **생활과학교육논총, 3,** 17-28.

노형진(2007). **SPSS에 의한 다변량 데이터의 통계분석.** 서울: 효산.

문은경(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인자(2009). 영유아 식생활습관, 식품기호도,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영양지식 및 영양태도와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소혜(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교육논총, 24**, 203-227.

박연진(2002).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정옥(2007). 해체 가정과 일반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부모역할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5**(7), 61-70.

백혜정, 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보건복지부(2013a). **2012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3b). **2012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신지현(2008). 저소득 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과 환경 변인의 중재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숙영(2012). 저소득층 어머니 양육행동을 통한 어머니 특성변인, 유아 특성변인과 유아의 사회정서행동간의 관련성 분석. **아동과 권리, 16**(1), 97-124.

오경자, 이혜련, 하은혜, 홍강의(2001).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 서울 : 휴노컨설팅.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양친가족, 편부

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6.

윤명숙(2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신건강실태와 재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 408-424.

윤혜미(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133-164.

이근매(2004).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 · 행동장애연구, 20**(1), 357-372.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의정, 이상균(2008). 빈곤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4**, 113-138.

장혜자(2000). 빈곤한 아동의 현황 및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57-270.

정안숙(2003). 가족 및 또래관계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우울 및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주소희(2003).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215-238.

최미례, 이인혜(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2**(2), 363-383.

최창진(2002). 가족의 구조적 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계청(2012).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통계.** 대전: 통계청.

한경혜,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8), 59-84.

한준아(2010).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지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 가정과 이혼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4**(3), 355-384.

홍미자(2006). 한부모 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우울성향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홍순혜, 이숙영(2009).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방임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

137-169.

황혜정, 천희영, 옥경희(2010).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주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대한가정학회지, 48**(7), 99-110.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llison, P. D., & Furstenberg, F. F. (1989). How marital dissolution affects children: Variations by age and sex.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40-549.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126-146.

Amato, P. R., & Booth, A. (1994). Parental marital quality, parental divorce and relations with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21-34.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Duncan, Brooks-Gunn, & Klebanow.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69-318.

Hetherington, E. M., & Clingempel, W. G.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2), 227-242.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1-18.

Joanne, H. (1996). *The whole child: developmental education for the early years.* New Jersey: Merrill Publishing Co.

Leyendecker, B., Harwood, R. L., Comparini, L., & Yalcinkaya, A. (2005). *SES. Ethnicity & parenting.*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McGee, C. (1999).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Swadi, H. (1999). Individu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us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55,* 209-22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and to figure out the influence of these parents' characteristics up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by comparing two-parent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93 parents who participated in a dream- start program geared toward low-income families. Their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tested, and their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children from intact families in the low-income classes showed more problem behaviors when their parents faced heavier parental stress, and they showed less problem behaviors when their par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them. In contrast, the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in the low-income brackets showed less problem behaviors when their parents had better dietary habits and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daily routine life, and they showed more problem behaviors when their parents were under heavier parental stress. The findings of the study seem to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of parental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is required to relieve the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from the low-income classes and improve the parental behavior of their parents, and that a wide variety of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marital status of parents as well.

▶*Key Words : ow-income bracket, psychological variables, behavioral variables, children's problem behavior*

논 문 투 고 2013. 06. 15.
수정원고접수 2013. 09. 29.
최종게재결정 2013. 10. 17.